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뉴스레터

No.3
2020.가을

발행일 2020.9.29 • 발행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 T 064.784.9446 • www.ramsar.co.kr



CONTENTS

02

동백동산습지센터
동백동산의 가을 소식

03

선홍장터
참깨

04

동백동산
꾸지뽕나무, 물달개비
부처사촌나비, 달갈머섯



05

선홍생태관광

06

마을 이모저모

08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동백동산습지센터의 가을소식

동백동산에서 만남교육 맛난요리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9월은 참 의미 있는 달인 듯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축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세계유산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1차는 7월에 “한국의 서원” 이라는 주제로 안동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2차로 경상북도의 경주, 안동, 영주에서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3차로 제주에서 baton을 이어 받아 9월 4일 ~ 9월 20일까지 “불의 숨길 만년의 시간을 걷다”라는 주제로 유산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동백동산에서도 2020세계유산축전 연계프로그램인 “동백동산에서 만남교육 맛난요리”라는 주제로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16~17일, 19~20일 4회 운영으로 각각 20명씩 신청 받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가족팀, 회사직원팀, 일반인 등 8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여행자들은 동백동산을 탐방하며 동백동산의 지질, 생태, 습지, 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토리 칼국수체험과 도토리묵 체험, 세끼줄꼬기 체험을 통해 지역음식문화와 사라져가는 지역전통문화도 경험하며 지역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여행자들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된 듯합니다.

아쉬운 점은 동백동산 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9월 3일 ~ 10월 5일 동안 제주도의 방침에 따라 임시휴관 상태여서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마을 운동장에서 진행해야 해서 조금은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동백동산 프로그램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림

동백동산 습지센터 임시휴관 안내: 9월 3일 ~ 10월 5일

참깨

재배역사가 오래된 참깨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을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 문헌에 백제로부터 참깨가 도입되었다는 기록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참깨가 재배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 항암작용, 뼈건강, 골다공증, 변비에방, 두뇌건강 등 등 참깨의 효능은 참 많습니다. 밀반찬 만들 때나 나물무침을 할 때도 참깨를 뿌리면 식감이 살아나고 고소함으로 더욱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선홍 마을 삼촌들이 재배하는 참깨는 4~5월에 파종하여 자식처럼 정성껏 키워 8월에 수확하는 믿을수 있는 지역농산물입니다.



동백동산 장터에 오시면 선홍 삼촌들이 직접 재배한 선홍의 참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참깨의 고소함으로 심신을 달래보세요.

선홍장터와 선홍 주말장터 소식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로 잠시 멈췄던 주말장터를 8월 세번째주부터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걸 감안하여 시원한 음료(백향과, 매실, 와송아이스티)를 준비하여 더위에 지친 탐방객 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음료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홍보, 판매하였고, 판매를 하였고 장터 상품들 중에서도 선홍고사리, 선홍꽃꿀, 천연꿀 등 지역농산물들이 판매 되었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제주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공공시설 일시운영중지 명령이 내려져 요즘은 주말장터 뿐만 아니라 습지센터운영이 또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터 매출이 아주 저조한 상태라 조합원님들과 마을 삼촌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석과 구정 때 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구입 하실 때는 동백동산 장터에서 주민들이 정성으로 만든 지역농산물 꾸러미 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말장터가 언제 이루어질지 상황을 보겠지만 제철 상품이 있다면 장터로 연락주시시오.



꺾개시낭, 꾸지뽕나무를 아세요?



뽕나무보다 더 단단하다는 뜻으로 '굳이뽕나무'라고 하였고, 이것이 변하여 꾸지뽕나무가 되었다. 누에를 키우기 위해 대접받는 뽕나무가 부러워 굳이 뽕나무를 하겠다고 우겨서 꾸지뽕나무가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제주에서는 꺾개시낭이라 불리는데 열매에 상처를 주면 우유와 같은 하얀 액체가 나오며 붉게 익으면 생과 그대로 먹어도 맛이 좋아 사람뿐만 아니라 새들도 좋아한다. 뿌리는 알개 자라며 뿌리껍질은 노란색을 띤다. 꾸지뽕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풍매화인 꾸지뽕나무는 수꽃을 많이 피워서 꽃가루를 많이 만들려고 하며,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 꽃가루받이를 끝내고 열매를 맺으면 종족을 번식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다.

생존의 달인, 물달개비

우물에서 자라는 닭개비(닭의 장풀)와 닭은 식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잎의 날개 밑에 얇전히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피고, 물 위에 피어 하늘을 보거나 옆을 향하고 있다가 열매가 맺히면 꽃대가 고개를 숙여 물속으로 들어가 떨어지기 전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물달개비의 이 모든 노력과 자기보존본능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손을 퍼트려 오래오래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전술이다.



논의 잡초를 대표하는 한해살이로 농약에 대한 내성 또한 강하여 제초가 매우 어렵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잡초이지만 물달개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능력을 잘 갖추었다는 것을 뜻 합니다.

커다란 눈알 무늬, 부처사촌나비

사촌은 서로 닮은 가까운 친척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부처나비의 사촌?

부처나비의 학명은 'Mycalesis gotama' 로 'gotama'는 불교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의 성이다. 어쩌다 불교 창시자의 성씨가 붙게 되었는지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부처나비'라는 국명은 나비박사로 유명한 석주명선생이 붙인 것이다. 멀리서 보면 구별하기 힘들만큼 닮았지만 날개를 가로



지르는 선이 보랏빛을 띠면 부처사촌나비이다. 커다란 눈알무늬는 적에게 공격당할 경우 교란을 일으키는 용도이다. 어디서든 관심을 기울이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부처사촌나비를 만날 수 있다.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다 독버섯일까?

어두운 땅속을 뚫고 하얀색 알이 솟아났다. 얼핏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계란 모양이다. 이 계란 모양의 알이 점차 성장하면서 하얀 껍질을 까고 빨간빛 보석이



세상을 향해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전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루쯤 더 지나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갓과 대를 온전히 갖춘 달걀버섯이 완성된다. 갓 표면은 등황색 또는 적황색이고 대의 표면은 등황색을 띠며 인편이 갈라져 뱀 껍질 같은 무늬를 나타낸다. 이렇게 완성된 달걀버섯은 2~3일이 지나면 포자를 날리며 생명을 다한다. 짧고 굵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는 것이다.

흔히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독버섯이라고 했지만 이 달걀버섯은 그동안의 편견을 확 깨어버린 맛이 좋은 식용버섯이다.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시대에 네로 황제에게 이 버섯을 진상하면 그 무게만큼 황금을 하사하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맹독성의 버섯들이 많이 있으므로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숲에서는 눈으로만 보고 맛있는 버섯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센스~~

요리학교 ‘뽕그랭이’

6월부터 진행된 선흥요리학교 ‘뽕그랭이’ 어느덧 9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빙떡, 고사리조기조림, 호박익국, 갈치국, 범벅 등 다양한 요리를 삼촌들과 즐겁게 만들어가며 어느새 마을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겨울까지 꼭 진행되는 요리학교는 후에 책으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기대해주세요.



선흥생태관광 ‘제주어 빙고’ 로 재미 더하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으로 선흥생태관광은 제주어 곳자알, 해변 빙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 전 모니터링을 4회 진행했고 해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주으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놀며 배우는 제주어 빙고는 제주캘리그래피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의 날 #마을에서 즐기는 로캉스 #‘선흥동동’

함께하면 행복한 프로그램 ‘선흥동동’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생태관광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을해설사를 통해 동백동산의 가치를 알아가고 지역의 음식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초록 초록한 곳자알로 초대합니다. 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9월 24일 ~ 10월 28일
- 운영시기: 20년 9월 27일 ~ 10월 31일 중 / 금, 토, 일
- 대상: 누구나 10인 이하
- 운영장소: 선흥1리 및 동백동산 일대
- 참가비: 25,000(해설비, 식비, 체험비 포함)
- 예약방법: 홈페이지 ramsar.co.kr → 동백동산습지센터 공고
- 문의처: 064)784-9445-6 / 010-6600-1196



#생태관광 주민교육

생태관광에 놀이를 더하다
- 교육을 통한 자연놀이 개념 확립
- 동백동산에 기존있는 숲놀이를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조성
- 생태관광에 놀이를 더한다.



동백동산 습지 “물비석 프로젝트”



생명이 시작되는 곳,

선홍곳 동백동산은 “습지를 품은 마을”입니다.

동백동산은 화산대지 위에 뿌리내린 숲으로 꽃자왈이라 불리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소를 제공하고, 세계유일 일속일종 고유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처이며, 여러 멸종위기종의 번식공간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곳입니다.

동백동산 습지는 예로부터 물을 길러 식수로 사용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곳곳의 습지마다 녹아있는 주민의 삶을 이야기책으로 엮어내며 주민 주체적 생태관광을 실천하고, 습지가 주는 가치를 공감하고, 보전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며 주민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습지·생태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습지를 보전하고 미래 세대들의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비석(기념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습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 달간 펀딩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동백동산 습지에 물비석을 세우는 의미를 전달하고 공유하여 50여명이 참여했으며, 250여만원의 물비석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동백동산 물비석을 세우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비석에 담아 미래 세대들에게 습지의 가치를 전달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비석을 세운 이유는?

-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을 위해
- 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 주민공동체가 기록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습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

- 기후조절의 기능
- 다양한 동식물 서식환경제공
- 수질정화 기능
- 수리·수문학적 기능
- 경관적 가치의 기능

부녀회 폐품수집



2020년 올해도 어김없이 부녀회(회장 박선옥)는 함덕농협 선흥출장소 앞에서 폐품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빈병, 캔, 농약병, 비료포대, 부탄가스 등을 모아 팔아 부녀회 기금마련도 하고 마을정비도하고 그야말로 1석 2조입니다. 올해는 비닐포대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흥2리 우진사업에서 가져왔고 농약병은 한국환경재생공사로 소주병은 농협 등으로 분리 배출되었습니다. 부녀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이나 김장김치를 만들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멋진 선흥 부녀회입니다.



선흥1리·북촌리·한원리 마을, ‘2020 농촌현장포럼’ 운영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가 오는 9월부터 조천읍 선흥1리, 북촌리, 한경면 한원리 총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현장포럼’을 진행한다.

농촌현장포럼이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지난해(2019년) 농촌현장포럼에서는 조천읍 대흘2리가 우수사례 발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농림부장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 예산은 약 2100만원. △1회차 마을 만들기 이해 △2회차 마을자원 및 과제 발굴 △3회차 지역현황 및 주민역량분석 △4회차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총평 등 마을별 4회차로 이뤄진다.

출처: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 소식 알립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 추가 모집 현황

3명이 신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 신규 조합원 명단: 한명경, 양인호, 조애정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에 가입해주신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소식

- 지난 5월 4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결과가 6월 30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은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여 8월 24일 예비사회적기업 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 기반을 둔 기업의 공공 구매 상담과 각(상품)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세모아(공공구매 지원단) 시스템에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 상품(농산물, 공산품, 생태관광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등록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 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 가능한 경우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선홍 물통에서 추억 사진찍기



- 동백동산의 습지는 주민들의 삶이며 추억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했고 이 곳이 있었기에 물부조도 가능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 사무국은 주민들이 지켜온 소중한 공간에 감사함을 담아 삼촌들과 함께 '추억의 사진찍기'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사진촬영은 '바라봄'사진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고 이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복지사업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어려운 걸음 함께해주신 삼촌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촌 ~~ 생신 축하드립니다. 올해 나온 햅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순여	음력 2월 5일 / 양력 2월 28일	부옥례	음력 7월 7일 / 양력 8월 25일
임순자	음력 5월 17일 / 양력 7월 7일	한신생	음력 7월 7일 / 양력 8월 25일
오가자	음력 5월 17일 / 양력 7월 7일	고금자	음력 7월 11일 / 양력 8월 29일
박춘실	음력 6월 6일 / 양력 7월 26일	윤춘자	음력 7월 17일 / 양력 9월 4일
부대호	음력 6월 17일 / 양력 8월 6일	부정일	음력 7월 20일 / 양력 9월 7일
고순자	음력 6월 17일 / 양력 8월 6일	박경일	음력 7월 29일 / 양력 9월 16일
김옥여	음력 6월 18일 / 양력 8월 7일	고성방	음력 8월 5일 / 양력 9월 21일
김금생	음력 6월 20일 / 양력 8월 9일	김상수	음력 8월 10일 / 양력 9월 26일
고창석	음력 5월 4일 / 양력 6월 24일		

